

국 가 정 보 원

수신자 조태욱(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257 3층)

(경유)

제 목 정보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서

(앞 쪽)

접수번호 2020-117

접수일 2020-11-19

청구 내용

제목 : 조태욱과 KT민주노조파괴공작 관련 국정원 사찰자료 및 보고서 등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 붙임1 > 참조

공개 내용

< 붙임2 > 참조

공개 일시

공개 장소

*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 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개 방법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수령 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전송 [☒]정보통신망 []기타

납부 금액

① 수수료

② 우송료

③ 수수료 감면액

계(①+②-③)

납부일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 붙임2 > 참조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국 가 정 보 원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협조자

시행

OO-OOOO(2020.12)

우

주소

전화번호 111

팩스번호

/ 홈페이지 주소 www.nis.go.kr

/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유의 사항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나. 수입인지(정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3.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납부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붙임 1 >

제목 : 조태욱과 KT민주노조파괴공작 관련 국정원 사찰자료 및 보고서 등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저는 국정원의 KT민주노조 파괴공작으로 인해 2010.4.1.자 KT에서 해고된 국정원 불법공작 피해자 조태욱 입니다.

현재 11년째 해고노동자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2019 고합13)에서 노조파괴공작 관련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 등 5명이 2020.2.7.자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서울고법 항소심(서울고법2020노486)에서도 2020.8.31.자 유죄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위 재판과정을 통해 국정원 등이 KT민주노조 파괴공작을 수행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국정원이 이명박 정권시절 저와 KT노조를 상대로 자행한 불법공작은 촛불정부 이후 국정원이 자체 감찰 결과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수사참고자료' 라는 문건제목으로 2018년4월경 넘겼는데요. 이 문건을 검찰이 받은 후 '비닉처리된 부분을 복원한 수사보고' 자료에 명시된 부분을 근거로 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문건에 등장하는 2008년 KT노조위원장 선거시 민주파 위원장후보(국정원은 강성후보로 칭하였음)로 출마했던 당사자이며, 2009년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공작중단촉구 기자회견을 주도적으로 개최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본인은 KT민주동지회 의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2008년 12월 치러진 KT노조위원장 선거시 국정원은 '강성후보 선거전략 및 동향을 파악하여 온건후보에게 제공하고, 강성후보 낙선을 위해 사측의 노무관리 강화를 독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온건후보의 당선을 지원' 하였음을 문건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첫째, KT조태욱 본인에 대해 국정원이 사찰하고 공작한 자료 일체

둘째, 2008년 KT노조 선거시 국정원이 파악한 강성후보 선거전략 및 동향 자료 일체(보고서 및 도감청 자료 등)와 온건후보에게 넘긴 구체적인 자료 일체.

세째, 2008년 KT노조 선거시 국정원이 '사측의 노무관리 강화를 독려하는 등'과 관련된 문건 등 자료 일체

네째, 국정원이 청와대 요구로 2008년10월부터 12월까지 KT노조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별 성향과 선거운동 실태 등 4차례 보고한 문건 자료 일체

다섯째, 국정원이 2008년12월 KT노조위원장 선거 후 2009년3월부터 당시 노조위원장 김구현을 접촉하여 민노총 탈퇴 설득과 관련하여 작성한 보고서 등 구체적인 자료 일체

여섯째, 2009년 KT단체교섭시 국정원이 사측에게 인사.보수제도 개선 등 노조 요구사항을 수용하도록 설득해 민노총 탈퇴를 유도하였다고 문건에 명시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 일체(국정원 누가 KT 사측 누구를 언제 만나서 어떤 내용의 인사보수제도 개선을 수용하도록 설득하였는지)

일곱째, 국정원이 2009.7.15. KT노조 전 간부를 활용하여 KT홈페이지에 민노총 탈퇴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조정한 것으로 적시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보고서 등 자료 일체

여덟째, 국정원이 노조파괴 전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함께 KT민주노조(운동)를 말살하기 위해 자행한 불법 공작 관련 문건 등 자료 일체(창조컨설팅의 '유성기업 노사관계안정화 컨설팅 제안서'에 과거 실적으로 KT 및 KT계열사를 파괴한 것을 내세우고 있으며, 창조컨설팅이 국정원과 유기적인 협조관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아홉째, 국정원이 KT노조위원장 선거(1996년 제6대~2017년 제13대)시 민주후보 낙선을 위해 개입하여 자행한 불법공작 일체 자료

열번째, 국정원이 KT단체교섭시(MB정권~박근혜정권) 개입하여 관철시킨 인사.보수제도 등 관련 자료 일체

열한번째, 국정원이 KT민주동지회를 상대로 벌인 사찰 및 불법공작 관련 자료 일체

이상의 국정원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 붙임

1. 국정원이 검찰에 보낸 수사참고자료 중 KT관련부분.pdf
2. 국정원 개입뒤 해고 10년...KT노동자 조태욱 이야기(20200511한겨레21 제1313호).pdf

< 붙임 2 >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 부분공개 결정 등을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청구항목 중 제2항 내지 제7항 기재 정보 - 부분공개

귀하께서 정보공개청구서에 첨부한 '수사 참고자료' 관련 정보 중 국가정보원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건 18건에 대해 공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개일 및 공개방법 안내 :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257 3층, 조태욱)로 12.24까지 등기우편 발송

다만 대상 문건 중 일부 정보는 국가 정보기관의 조직 관련 사항 및 제3자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다른 법률
<국가정보원법 제6조>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및 同法 제9조 제1항 제6호(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따라 비공개하며, 이에 해당 부분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2. 청구항목 중 제8항 기재 정보 - 정보 부존재

귀하께서 공개를 요청하신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관련 KT민주노조 파괴공작 문건'은
국가정보원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아 '정보 부존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청구항목 중 제1·9·10·11항 기재 정보 - 청구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귀하의 청구내용 중 제1항 및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대해 법령, 관련 판례 및 <정보 공개 운영 안내서(행정안전부 刊)> 등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를 답변 드립니다.

정보공개 청구시 청구인은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등).

그러나 귀하가 청구서에 기재한 해당 항목들의 공개청구 정보는 포괄적이고 막연하여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위 항목에 적시된 청구대상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보완하여 정보공개를 다시 청구해 주시면 대상 정보의 존부 확인 및 공개 여부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KT노조 위원장 선거 관련 동향 및 전망

2008.11.13.

- 12월초 실시예정인 KT노조 위원장 선거와 관련 온건성향 출마 입지자들간 단일화 시도가 실패함에 따라 후보 난립에 따른 혼전 예상
- 한편, 노조는 조만간 선거 공고(규약상 선거 20일전 공고) → 후보자 등록(공고일 후 5일 이내) → 선거운동 개시 등 선거절차를 밟을 예정

입지자 동향

○

- 강성의 민주동지회(‘民同會’)측은 조태욱(서부분부 소속)을 위원장 후보로, 을 부위원장 후보로 확정

* 조태욱은 11.12.~14.간 휴가를 내고 전국지사 순회에 나서는 등 勢몰이에 돌입

- 반면,

최근 후보단일화를 시도하였으나, 끝내 실패

*

평가 및 전망

○ 온건성향 출마 입지자들의 단일화 시도가 실패함에 따라 現 판도가 선거일까지 지속될 경우 5명의 후보 난립으로 혼전이 예상

- 현재로선,

후보진영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 民同會 후보 이외 여타후보들 공히 使측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당선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 막판 단일화 가능성 내재

○ 한편

*

※ 배 포 : 비서관

KT노조 위원장 선거 관련 동향 및 전망

2008.11.21

- 오는 12.3. 실시 예정인 **KT노조** 위원장 선거에는 **온건성향 3명 · 강성 1명** 등 총 4명의 후보가 경합

○

各 후보 선거운동 본격화

○

○

○

★

- **强性**인 ‘民同會’에서 밀고 있는 **조태욱**(서부분부 소속) 후보는 11.17부터 휴가를 내고 **전국투어**에 나서는 등 **밀바닥 표심** 잡기 본격화
-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지방본부 위원장**(12명) 및 지부 · 분회장(398명)도 함께 뽑게됨에 따라 각 후보들은 **自派 세력** 부식을 위해 **총력전** 전개

평가 및 전망

○ 이번 KT노조 위원장 선거는

- 2명의 후보가 청와대와 與黨의 직간접 지원을 받고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데다
- 이들이 민주노총을 탈퇴한 후 한국노총 가입이나 제 3노총 참여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는 점 등이 주된 특징

○ 온건성향 후보들의 단일화 시도가 무산됨에 따라 現 판도가 선거일까지 이어질 경우 4명의 후보 난립으로 혼전이 예상

- 온건성향 후보들은 사측 지원 없이는 당선에 힘들다는 점을 알고 있어 사측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막판까지 치열한 물밑경쟁을 벌일 전망

○ 한편 社內일각에서는 온건후보 난립으로 자칫 강성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을 우려하면서, 使측이 지원 후보를 조기에 결정해 여타 온건성향 후보들의 조기 사퇴를 유도해야한다는 여론 대두

※ 배 포 : 비서관

KT노조 위원장 選舉 판세분석 및 전망

2008.12.01.

- 오는 12.3. 실시 예정인 **KT노조** 위원장 선거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큰 상황**

○

各 진영 총력전 돌입

○

*

-

-

* 1차 투표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 多득표자가 당선

- 强性조직인 ‘**民同會**’의 지원을 받고 있는 **조태욱** 후보(서부분부 소속)는
 - 경영난 심화에 따른 대대적인 **구조조정 저지** 및 **고용안정**을 **쟁취**할 수 있는 책임자임을 부각하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으나

- 자체 중간판세 분석 결과 강한 **견제**와 고정표 미흡 등으로
20% **내외**의 득표에 그칠 것으로 나타나자 크게 **낙담**

○

*

○ 한편,

평가 및 전망

○ 이번 **KT노조** 위원장 선거는

- 막판 돌출변수가 없는 한 1차 투표시 과반수 득표로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 **조태욱** 후보의 ‘밑바닥 훑기’와
표몰이에 성공할 경우 **결선투표** 소지도 있으나
- 의 지원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온 그간의 관례를 감안할 때
결선투표까지 가더라도 이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한편 **12.3.** 위원장 선거시 **조태욱** 후보가 **선전**할 경우 **12.5.** 하부조직
선거에서도 **강성파**들의 **약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2010년 복수노조
허용을 앞두고 **勞-勞 갈등** 및 사측의 **노무관리상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

* 당초 12.3.로 예정됐던 지방본부 위원장·분회장 등 선거가 준비 부족 등으로 12.5.로 연기

※ 배 포 : 비서관

KT노조 위원장 결선투표 판세분석 및 고려사항

2008. 12. 8.

- 12.9. 실시 예정인 KT노조 위원장 결선투표는 지난 1차 투표시 强性 후보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온건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중론

○

온건후보 유리한 고지 선점

○

—

*

—

○

—

—

*

- 한편, 强性 조태욱 후보 캠프는 '구조조정 저지 및 고용안정 쟁취'를 모토로 안정희구 심리를 자극하는 등 막판 표심잡기에 골몰

이후 노사관계 전망

-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 이번 선거에서 **상당수** 조합원들이 **강성** 후보를 **지지**한 점을 의식, 그간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지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 **구조조정 추진** 관련 사측과 **긴장관계**를 통해 현장 조합원들의 불만을 달래는 식으로 **‘투쟁의 모양새’**는 갖춰나갈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민주노총 탈퇴·맹비 납부 중단** 등 노사관계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급격한 **노선변경**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조치 계획

- ① 만큼 **협력적 노사관계**를 계승·**발전**시키도록 지속 독려
- ② 노무관리를 핵심경영 과제로 인식시켜 인사·노무라인 대폭 보강 등 **노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강조

* 2010년 복수노조 허용 등에 대비, 강성 ‘민동회’ 전채방안을 강구토록 독려

- ③ 장기적으로는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등 노사관계 선진화 선도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노선변화**를 유도

※ 배 포 : 비서관

KT 노조 위원장 선거 관련 추가 사항

'08. 10. 22.

1. 관련 사항임

2. 관 련 내 용

○ 위원장 선출 방식

-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동반출마

- 과반수 득표자로 당선자 결정,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며 최다득표자와 차순위간 결선투표로 결정

○ 현 위원장 임기는 금년 12.31.까지이고 차기 위원장 임기는 내년 1.1.부터 시작

○

-

-

○ 출마 예상자들의 현 소속근무처 및 직책, 활동상

- 조태욱: 서부분부 부평지사 계양지점, 4급(대리)

9.21 민동회 총회를 통해 위원장 후보로 선출된 후 ‘고용안정’,
‘임금인상’ 쟁취 투쟁을 내걸고 현집행부를 공격하며 조합원들
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음

※ 민동회 후보인 조태욱을 제외하고는 여타 출마 예정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온건 후보로 분류하여도 무방(끝)

조태욱 KT 노조위원장 출마예상자 동향 및
동향

의 대응

08.10.30.

1. 인천계양지점에 근무하며 KT노조위원장 출마예상자인 조태욱 관련 동향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2. 보고내용

○ 동명은 현재까지는 자신이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채 민동회(민주노동자 동지회) 소속 노조원들과의 접촉을 강화하는 이외 특이동향은 없으나

○

—

—

—

—

끝.

KT 노조위원장 선거 동향 및 전망

‘08. 10. 30.

1. 12월 KT 노조위원장 선거와 관련
를 밝힌 가운데 일부 출마 예상자들이 선거 사무실을 개소하는 등
선거운동이 본격화

2. 각 진영 동향

【 동향】

○

—

—

—

○

【 동향】

O

O

【 동향】

O

O

O

【 동향】

O

O

【 동향】

○

○

【조태욱 동향】

- 극좌파의 ‘민동회’(전국회원 180명) 후보인 조태욱은 20%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용불안이 대두된 KT 플라자 1,500명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지속
- 1,500명이 10명씩만 포섭하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동조세력 확산에 주력

3. 전망 및 대책

- 출마 예정자가 난립하고 있으나
좌파의 민동회는 현재 10%~20% 지지에 불과하여 당선이 불가능하고

○

‘민동회’를 제외한 진영이 난립하고 있으나

○

○

○ 한편

- KT 노조는 민주노조(좌파,)를 거치면서 조합원들의 지지를 잃고 있으며
- IMF 사태 이후 조직개편, 인력감축, 완전 민영화를 통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2001년 이후 노조의 조직력이 회사의 영향력에 지배를 받기 시작하여 현재는 완전히 회사의 영향력 안에 있는 바
- KT 노조 선거는 회사에서 선호하는 위원장 후보가 결정될 경우 인물에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이 없으며 내부 정서상 '민동회' 출신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없는 만큼
- 정부의 노동정책에 부응, 선도적으로 '노사관계 선진화'를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인물)이 위원장 후보로 결정될 수 있도록
에 대한 지도가 필요(끝)

조태욱 KT 노조위원장 출마예상자 동향및 의 대 응동향

08.11.4.

1. 인천계양지점에 근무하며 KT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가 확실시되는 조태욱 의 동향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2. 보고내용

○ 동명은 민동회 대표로 KT노조위원장에 출마키위해 오는 11.12-14간 휴가를 내어 전국지사를 순회하며 지지기반 확산을 위한 선거운동 계획을 추진 함에 따라

○

-

-

○ 한편 에서는

-

· 끝 ·

조태욱 KT 노조위원장 출마예정자 동향

08.11.07.

1. KT인천계양지점에 근무하는 조태욱 노조위원장 출마예정자 동향을 다음과 같이 파악 보고 합니다

2. 주요동향

- 조태욱은 오는 11.11경 KT 노조위원장 선거공고가 예정됨에 따라 11.12-14.간 휴가를 내고 전국의 지사들을 순회하며 노조원대상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인데

○

—

—

—

—

.끝.

조태욱 KT노조위원장 출마자 동향및 대응동향

08.11.17.

1.KT 인천계양지점에 근무하는 조태욱 KT노조위원장 출마자 동향및 대응 동향을 다음과 같이 파악 보고합니다

2.관련동향

○ 오는 12.3 실시될 KT 노조위원장 선거를 둘러싸고 11.16현재 후보는 민주노동자 동지회소속 조태욱을 비롯

등 3명의후보가 난립 하였는데

○ 후보등록 마감기간이 11.17.17:00마감예정인데 현재

후보등록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 조태욱 후보는 11.17 출근을 하지않고 전국투어를 하며 선거운동에 본격돌입

* 조태욱은 이미 12.3.까지는 출근치 않고 전국 투어를 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

○ 이에따라 에서는 온건후보들의 난립으로 자칫 하면 운동권의 조태욱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 될것을 우려

○

*

22.

조태욱 KT노조위원장 후보자 특이동향 보고

08.11.20.

1. 인천계양지점에 근무하는 조태욱 노조위원장 후보자의 특이동향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2. 보고내용

○ 동 명은 오는 12.3 실시되는 KT 노조위원장 선거에 기호2번으로 후보등록 후 11.20 현재 민주노동자회소속 노조원 15명을 선정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고 12.2.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 하였는데

○ 은

- 조태욱은 출근을 하지 않고 민주노동자회의 지원을 받아 수도권에 선거사무실을 개소 후

- 수시로 선거운동원들과 회의를 통해 선거전략을 논의하면서 운동원들에게 전국지사를 방문하여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도록 독려

*

○ 이와관련 은 하루빨리 사장이 선임되어야만 온건후보들을 규합 단일화 시킬수 있는데 현재 총 4명의후보가 등록한 상태에서는

○ 강성인 조태욱만 유리한 입장에 있고 건전성향의 후보가 3명이나 난립 표가 분산될 위험에 있다며

○ 정부가 조기에 사장을 선임해야만 온건후보를 단일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 . 끝.

KT 노조 위원장 선거 판세 분석 및 전망

‘08. 12. 8.

1. 12.9 치러질 KT 노조 위원장 결선투표에서

강성의 조태욱 후보를 6:4 정도로 제치고

당선될 전망

2. 관 련 내 용

- 지난 12.3 치러진 KT 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강성의 ‘민동회’ 측 조태욱 후보의 예상을 꺾 선전으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2.9 조태욱 후보간 결선투표 앞두고 있는 가운데

○

—

—

○

—

—

*

○ 비록 강성의 '민동회' 측 조태욱 후보 진영이

- 1차 선거에서 42.75%를 확보한데 고무, 지방본부장 선거에서 선전한 수도권의 강북, 서부, 남부분부를 중심으로 수도권 조합원 공약에 집중하고

* 12.9 위원장 선거와 함께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강북, 서부, 남부 및 대구본부 위원장 선거도 실시

- 내년에는 약 1조원에 이르는 수익감소로 진행될 구조조정을 막아낼 후보는 자신뿐임을 내세워 지방 조합원의 고용안정 심리를 자극하는 한편
- 1차 선거에서 개표 결과가 조작되어 조태욱 후보가 과반을 득표치 못했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지원하기 위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說을 흘리면서
- 그간 투쟁다운 투쟁을 하지 못했던
체제에 반감을 갖고 있던 일반 조합원의 표심을 잡는데 주력하고 있으나

o 12.9 결선투표는

- 일반 조합원(직원)들도 회사가 위기경영을 하고 있는데 강성노조가 출범할 경우 회사 경영이 더욱 곤경에 빠져 현 일자리마저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현실론이 공감을 얻고 있어
- '민동회'측 조태욱 후보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6:4 정도로 승리할 것으로 전망

o 한편,

○ 따라서 當院에서는

- , 협력적 노사관계 노선을 계승·발전시키도록 강조하고
- , 새 집행부의 활동 방향이 합리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며
- 노무관리가 경영상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시켜 노무관리에 만전(인사노무라인 교체 및 보강 등)을 기하도록 주문하고
- ‘민동회’ 측 세력을 견제·위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독려하는 한편
-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KT 노조가 노동계 지형을 변화시키고 노사관계 선진화 선도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민주노총 탈퇴 등 노동운동 노선 변화를 유도해나가겠음(끝)

온건후보 KT노조 위원장 당선 위한 當院 지원활동 실태

‘08. 12. 11.

1. 當院에서는 KT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온건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강성후보 선거 전략을 파악하여 정보 제공하는 등 측면 지원

2. 當院 지원활동 내용

○ KT노조 위원장 선거에 에서
3명의 후보가 난립함으로써 온건후보의 당선이 불투명해 질 것으
로 예상

- 온건 후보 핵심 인사들을 연쇄 접촉, 진영간 만남을 주선하며 후보
단일화를 유도하였으나 후보 단일화가 무산됨에 따라

-

- 자칫 레이스를 완주할 경우 온건 후보 지지표가 분산되어 강성의
‘민동회’측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

- ‘민동회’측 후보의 당선으로 8년간 유지해온 협력적 노사관계 틀이
무너지지 않도록 자진 사퇴할 것을 설득

*

당선 지원을 위해

- ‘민동회’ 측 후보 선거 전략 및 선거운동 동향을 파악하여 후보 진영에 제공하고

* ‘민동회’ 측이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KT 플라자 직원 1,500명을 집중 공략하고 이를 세 확산 전위대로 활용할 계획 등을 파악

- 당선에 필요한 사측의 지원 요망 사항을 파악하여 사측 노무라인에 전달, 사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는 한편

○ 또한, 에 대해서는

- 과 인사노무라인의 검찰 수사 등으로 약화된 현장통제력을 조기 복원하여 위한 노무관리를 강화토록 독려하고

- ‘민동회’ 측이 사측의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측의 선거개입 논란을 제기하며 당선무효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는 선거 전략을 사전 입수, 부정선거 시비에 말려들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강화토록 조치(끝)

KT노조 민주노총 탈퇴 추진 동향

2009. 3. 27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KT노조(3만여명)를 5월중 민주노총에서 탈퇴시켜 춘투 열기를 가라앉히고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겠다

□ 탈퇴 여건

- KT는 8년간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하고 2004년에는 신노사문화 대상을 수상하는 등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유지
- KT노조는 그간 민주노총 소속 노조임에도 불법·정치 투쟁에 참여하지 않고 인원 감축 등 사측의 경영혁신에 협조하는 합리노선 견지

* 은 강경투쟁만 일삼는 민주노총과의 관계 정리 필요성을 수시 피력

□ 이와 관련, _____에서는

- _____으로 민주노총 탈퇴 필요성을 지속 주지. 5월중 민주노총을 탈퇴토록 독려하는 한편

- _____, 노조 지도부가 민주노총 탈퇴를 결행할 수 있도록 강경세력 견제 등 현장 노무관리를 한층 강화토록 하고

* _____은 94년 _____투쟁시 _____을 맡아 민주노총 탈퇴 문제에 관심 다대

- _____등 민주노총 탈퇴 추진세력을 연결. 민주노총 방해활동에 대응하는 등 민주노총 탈퇴 여건을 조성하겠다

□ 탈퇴시 파급 영향

- _____등 민주노총 탈퇴를 망설이고 있는 노조들을 자극시켜 연쇄적 탈퇴를 유도. 민주노총 조직력이 급속 약화

- 5.1 노동절 집회를 계기로 본격화될 임단투와 비정규직 등 노동현안 관련 민주노총의 5~6월 총력투쟁 열기가 냉각. 노사관계 안정 토대를 구축

KT 노조의 民勞總 탈퇴 추진

2009. 7. 6

은 KT 노조의 민노총 탈퇴를 위해 를 수시로 접촉, 賃團協 타결(5월말) 등 노사갈등 요인을 제거하고 총투표(7.17) 등을 실시토록 유도

□ 은 그간

- KT노조의 민노총 탈퇴를 위해 과 공조, 인사·보수제도 개선(4.30)·賃團協 타결(5월말) 등을 유도, 노사 갈등 요인을 제거하고
 - * 인사·보수제도개선협의회에서 勞使간 이견을 보였던 직급폐지·직종단일화 실현
- 와 수시 접촉, 50개 지부장 선거시 지지후보 全員을 당선(4.30)토록 하는 등 민노총 탈퇴 기반을 구축한데 이어
- 지방본부위원장회의시(7.7) 민노총 탈퇴 조합원 총투표 실시를 의결토록 하여 7.17 총투표를 통해 민노총을 최종 탈퇴토록 할 계획임
 - * 7.10 민노총 탈퇴 여부 결정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 일정(7.17)을 공고

□ 평가 및 전망

- 노조원들이 를 신뢰(88%)하고 있고, 노조 장악력이 높은 의 민노총 탈퇴의지가 강해 조합원 총투표시(7.17) 가결될 것으로 전망
 - KT노조의 민노총내 세력규모(대의원 3%·조합원 數 2만 8,000명) 등을 감안시 민노총 탈퇴를 의결할 경우 민노총 세력 약화는 물론 여타사업장의 이탈 가속화를 유도하고
 - 민노총 산하 IT연맹 가입 노조 대부분이 KT 계열사로 이들 노조들의 연쇄 탈퇴도 예상되어 IT연맹 붕괴도 기대
- ※ 은 과 협조, 조합원 대상 탈퇴찬성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반대세력의 妨害활동을 점검·견제, 탈퇴 마무리 주력하겠음. 끝.

KT 노조 민노총 탈퇴 추진 일정 및 조치 필요사항(保安)

'09. 7. 7

1. 는 當院 협조 하에

7.17 조합원 총투표를 통한 민노총 탈퇴 추진 일정을 마련해 놓고 있는 만큼反집행부 및 민노총의 탈퇴 방해·위해 활동을 차단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

2. 관련 내용

0 은 KT 노조의 민노총 탈퇴
를 7.17 조합원 총회를 통해 마무리짓기로 합의하고 세부 추진
일정을 마련

0 추진 일정

- 7.7~7.8 지방위원장 회의 개최, 민노총 탈퇴 및 KTF 노조 통합
건을 조합원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의
- 7.9 지방본부별 지부장회의 개최, 지부장 전원으로부터 조합원
총회 안건 상정 찬성 연서명 작성
- 7.9 KTF 노조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KT 노조와 합병 의결
* 지난 6.1 KT와 KTF가 합병
- 7.10 조합원 찬반투표(7.17) 공고
* KTF 노조와의 합병 및 민노총 탈퇴에 관한 件

- 7.13~7.16 노사 조직을 풀가동, 찬반투표 독려
- 7.17 조합원 찬반투표
- 7.20 이후 자회사 사장회의 개최, 8월 이내 자회사 노조 민노총 탈퇴 추진 결의

- 노조원 2만8천여명으로 세 번째로 큰 KT 노조가 민노총 탈퇴할 경우 IT 연맹이 붕괴되는 등 민노총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
- 노조反집행부(400여명) 및 민노총의 탈퇴 방해·위해 활동이 극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
- 노조의 민노총 탈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KT 본사 및 주요 지사에 대한 시설 보호를 비롯하여

, KT 前노조 간부 활용 민노총 탈퇴 지지 성명 발표 유도

2009.7.15

- KT노조의 민노총 탈퇴를 반대하는 극렬 노조원으로 구성된 “민주노동자동지회”가 조합원을 상대로 반발 e-mail을 발송하는데 대응 , 탈퇴찬성 지지 성명서를 발표토록 유도

□ 관련내용

- 09.7.17 실시되는 “민노총 탈퇴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에 반대하는 KT노조내 극렬 조합원 200명으로 구성된 민주노동자동지회(회장: 조태욱)는

- 7.14-7.17간 KT노동조합 조합원(28,612명) 대상으로 “노조가 민노총 탈퇴와 동시에 KT노조는 해체될 것이고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발송을 추진

* 민주노동자 동지회 회장 조태욱(47세)은 한국외대 러시아과 졸업 후 89.1 KT입사하여 KT노조 인천지부장을 거쳐 민노당 인천시당 대의원으로 활동중인 정치성이 강한 인물임

- 이에 를 조정, “KT노동조합의 민노총 탈퇴선언을 지지하며” 題下 아래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토록 하였음

- KT노동조합은 새희망을 만들어가는 노조로 거듭나기 위해 민노총 탈퇴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17일 실시한다
- KT노조는 4대 이전에는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운동권 출신들이 주축이된 5대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민노총으로 바뀌었으며 조합원을 볼모로 대정부투쟁을 위한 선봉대가 되었다

- 그로 인하여 김영삼 정권시절 국가전복세력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으며, 이때부터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 지금은 종사원 어느 누구도 정년은 커녕 고용보장을 장담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이 시점에서 과연 민노총과 KT노동조합이 같은 노선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 민노총이 외쳐대던 모든 것을 투쟁을 통해서 쟁취해야 한다는 노동자 해방 세상이 우리 KT의 현실과 맞는지 생각해 보아야한다
- 이제라도 과거에 잘못 끼워진 단추는 바로잡아야 한다. 과도한 정치투쟁과 내부 정파싸움에 골몰하는 이런 민노총에 KT노동조합원의 운명을 맡길수 없다
- 현실과 동떨어진 과격한 노동운동보다는 고용보장과 조합원의 실익이 우선 되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노선과 비전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민노총을 탈퇴해야 하는 시기이다

○ 이와관련 는

- 同 성명서를 KT노조 내부 통신망 및 민주동지회 홈페이지 (www.ilovekt.org)에 등록, 모든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 끝.

KT 前노조 간부 활용 민노총 탈퇴 지지 성명 발표 유도

2009. 7. 15

는 KT노조의 민노총 탈퇴를 반대하는 극렬 노조원으로 구성된 “민주노동자동지회”가 조합원을 상대로 반발 e-mail을 발송하는데 대응 탈퇴찬성 지지 성명서를 발표토록 조종하였음

□ 09. 7.17 실시되는 “민노총 탈퇴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에 반대하는 KT노조내 극렬 조합원 200명으로 구성된 민주노동자동지회(회장: 조태욱)는

- 7.14~7.17間 KT노동조합 조합원 (28,612명)대상으로 “노조가 민주노총 탈퇴와 동시에 KT노조는 해체될 것이고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발송을 추진

* 민주노동자 동지회 회장 조태욱(47세)은 한국외대 러시아과 졸업 후 89.1 KT입사하여 KT노조 인천지부장을 거쳐 민노당 인천시당 대의원으로 활동중인 정치성이 강한 인물임

□ 이에 “KT노동 조합의 민주노총 탈퇴선언을 지지하며” 題下

○ KT노동조합은 새희망을 만들어가는 노조로 거듭나기 위해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17일 실시한다

○ KT노조는 4대 이전에는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운동권 출신들이 주축이된 5대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민주노총으로 바뀌었으며 조합원을 볼모로 대정부투쟁을 위한 선봉대가 되었다

- 그로 인하여 김영삼 정권시절 국가전복세력이라는 썰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으며, 이때부터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 지금은 종사원 어느 누구도 정년은 커녕 고용보장을 장담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이 시점에서 과연 민주노총과 KT노동조합이 같은 노선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 민주노총이 외쳐대던 모든 것을 투쟁을 통해서 쟁취해야 한다는 노동자 해방세상이 우리 KT의 현실과 맞는지 생각해 보아야한다
- 이제라도 과거에 잘못 끼워진 단추는 바로잡아야 한다. 과도한 정치투쟁과 내부 정파싸움에 골몰하는 이런 민주노총에 KT 노동조합원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 현실과 동떨어진 과격한 노동운동보다는 고용보장과 조합원의 실익이 우선되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노선과 비전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민주노총을 탈퇴해야 하는 시기이다

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토록 조종하였음

□ 이와

- 同 성명서를 KT노조 내부 통신망 및 민주동지회 홈페이지 (www.ilovekt.org)에 등록, 모든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